

# 2021년 도민평생학교 제주 신화 학교 2기

- 일반신 본풀이 2 -







# 목 차



## 1강

영혼을 데려가는 차사의 내력, 차사본풀이 ..... 1  
 강정식(제주학연구소 소장)

## 2강

액막이로 삼천년을 살게 된 스만의 내력 ..... 9  
 - 스만이본풀이(멩감본풀이)  
 류진옥(제주학연구소 연구원)

## 3강

삶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까닭, 지장본풀이 ..... 17  
 강정식(제주학연구소 소장)

## 4강

세경본풀이 ..... 27  
 - 오곡 씨와 농경의 유래, 땅에 디딘 삶을 돌보는 '세경의 덕'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

## 5강

가족 역할과 거주 공간의 신성화, <문전본풀이> ..... 37  
 이현정(제주대학교 강사)

## 6강

칠성본풀이 ..... 47  
 - 뱀신(蛇神)의 얼굴 '안칠성'과 '밭칠성'이 가져다주는 풍요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



---

# 1강

영혼을 데려가는 차사의 내력, 차사본풀이

---



# 영혼을 데려가는 차사의 내력, 차사본풀이

강정식(제주학연구소 소장)

## 1.

<차사본풀이>는 인간의 영혼을 저승까지 데리고 가는 강림차사의 내력을 담은 이야기이다. ‘스제본’, ‘강림차사본’ 이라고도 한다. 시왕맞이, 차사영맞이, 귀양풀이 등에서 구연한다.<sup>1)</sup> 큰굿의 경우에는 거듭 구연한다.<sup>2)</sup> 이때의 본풀이는 ‘데명왕차사본풀이’와 ‘인간차사본풀이’로 달리 명명할 수 있다. 영등굿이나 잠수굿에서 구연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는 ‘요왕차사본풀이’라고 한다. 달리 ‘거북스제본풀이’라고도 한다. 바다에서 죽은 영혼을 맡은 차사인 요왕차사를 위한 본풀이인 셈이다.

<차사본풀이>는 무속의례 가운데 귀양풀이의 근원을 제시하는 신화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안사인본 <차사본풀이>에는 귀양풀이와 관련한 대목이 없다.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안사인본 자료는 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료로 공인되어 있지만, 실제 사정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차사본풀이는 시왕맞이에 속한 하위 제차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면 독립제차가 아니라는 뜻이다.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등은 독립제차로도 마련된다. 본풀이 자체의 위상에 견주어보면 독립제차로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차사본풀이가 아니라 시왕맞이의 특별한 면모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록 맞이곳에 속해 있다고는 해도 독립제차와 같은 수준의 위상을 갖추고 있기는 마찬가지

1) 차사영맞이를 대신하는 의미가 있는 제차여서 종종 영혼을 위로하는 의미의 제차가 포함된 소규모 의례에서도 구연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테면 당주제에서 구연하기도 한다.

2) 신굿에서는 삼시왕맞이에서도 구연한다. 이때 <차사본풀이>와 <초공본풀이>를 연이어 구연하는 사례도 있다.

이다.

<차사본풀이>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연한다. 일반적으로는 심방이 앉아서 스스로 장구를 치면서 구연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북을 치면서 구연하기도 한다. 신곳에서는 심방이 소미가 치는 연물에 맞추어 서서 노래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구연하기도 한다.

<차사본풀이>는 본풀이 가운데 의례적인 내용이 삽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강림이 저승으로 가는 길에 일흔여덟 갈림길을 만나는데, 이 길에 대한 풀이 대목이 그러하다. 모든 신의 위계 차례로 언급하면서 이들이 들어간 길이라고 길게 풀이한다. 이것은 본풀이의 서사 전개와는 무관한 것이다. 의례성이 강한 본풀이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2.

<차사본풀이>는 제주도에서만 전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본래 본토에서도 널리 전승되던 이야기로 보인다. 같은 유형의 이야기로 거론되는 것은 다음 셋이다. 관북지방의 짐가제굿, 충북의 <영동이 유래담>, 전북의 <흥덕현감설화(興德縣監說話)> 등이다.<sup>1)</sup> 자료가 많지는 않으나 북부, 중부, 남부에서 고루 전승하던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신화와 전설 형태로 전승하면서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차사본풀이>의 전반적인 내용은 본토와 공유하는 것이다.<sup>2)</sup> 따라서 제주도에서 새롭게 꾸며진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한다.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 (1) 초반부에 중이 등장하여 절로 이끈다.
- (2) 살해당한 삼형제가 꽃으로 화생한다.
- (3) 강림이 각시의 능력이 범상치 않다.

1) 짐가제굿 무가는 함경도 함흥 자료이다. 이고본분과 지금섭본이 있다. 각각 다음 책에 소개되어 있다. 김태근, 『한국무가집(3)』(집문당, 1978). ; 임석재·장주근,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3) : 관북지방 무가』(문화재관리국, 1965)

2) 관련 연구 가운데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은 다음 논문이다. 김형근·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 함흥 <짐가제굿> 무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008 가을호 제31권 제3호(통권 112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8), pp.239~271.



- (4) 과양생이 각시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다.
- (5) 강림이 차사로서의 좌정과정이 구체화되었다.
- (6) 상장례의 기원이 구체화되었다.
- (7) 귀양풀이의 근거를 분명히 하였다.

(1)은 일반신본풀이의 공통적인 면모이다. 일반신본풀이의 경우 대체로 초반부는 어떻게든 중의 등장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대개 기사(祈子)를 위하여 절을 찾는 것과 달리 수명 연장을 위하여 절을 찾는 것이 다를 뿐이다.

(2)는 제주도 무속의 기본 관념을 충실히 따른 대목이다. 이북 지방의 자료에서는 죽은 형제가 물고기로 화생(化生)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차사본풀이>에서는 꽃으로 설정하였으니 이북의 경우와 견주어 보면 매우 다른 설정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 생명의 씨앗을 생불꽃으로 설정하는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겠다.

(3) 강림이 각시의 우월한 면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면모가 다른 지방의 경우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북 짐가 제곳(이본)의 경우에도 남편에게 귀신 잡을 방도를 가르쳐주는 일을 맡는다. 그러나 <차사본풀이>에서 강림이 각시의 면모가 더욱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강림이 각시는 신혼 때부터 강림이에게 소박이나 맞던 여인네였다. 그러나 강림이가 위기에 처하자 모든 것을 알고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아는 능력을 펼쳐 보인다. 이것은 제주도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이다.

(4) 과양생이 각시를 사지를 찢어 죽인다. 처벌의 수준이 매우 엄중하다. 이것은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서는 드물지 않은 설정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문전본풀이>에서도 볼 수 있다. 노일저데귀일이 뜰에 대한 녹디생인 형제의 복수도 만만치 않다. <이공본풀이>의 복수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할락궁이는 자현장자의 일족을 한 자리에서 멸족시켜 버린다.

(5) 강림이 차사가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염라대왕을 잡아오는 과정도 다른 지방 이야기에 있는 것이지만 <차사본풀이>에서

강림이의 면모를 더욱 영웅적으로 그렸다. 이북 자료(이본)에는 강림이가 바보 같은 인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반면 이북 자료(지본)에서는 관아 소속 사령으로 나중에 염라대왕을 따라가 차사가 된다고 설정하였으니 <차사본풀이>와 매우 유사하다.<sup>1)</sup> <차사본풀이>에서는 강림이가 죽어 저승으로 간 뒤에 인간세상을 오가며 영혼을 데려가는 일을 맡는 과정을 구체화하면서 강림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강림의 능력이 신화의 주인공에 합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6) 장례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다각도로 삼입하였다. 입관, 성복, 일포, 우제 등 제반 과정을 거론한다. 각 과정의 특징적인 면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한다.

(7) 귀양풀이의 근거를 분명히 담았다. 귀양풀이는 과양생이를 처단하는 데 동원되었던 청년과 소에게 벌어먹을 구실을 마련해주는 데서 마련되었다. ‘원귀양 신풀이’, ‘일곱 신앙 아홉 귀양’ 등의 표현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귀양풀이는 장례 과정의 낯은 것을 풀어내는 의례이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동방삭 전승은 제주도에서 덧붙은 것이라는 점이다. 동방삭 전승은 강림이의 면모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한계에 닥쳤을 때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동방삭 전승이 <차사본풀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물론 심방사회에서는 심각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에 굳이 끼어들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차사본풀이>는 의례와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심방은 질침을 하면서 차사의 복색을 갖추어 입고 차사의 구실을 대신한다. 먼저 차사가 하는 일을 설명한다. 차사는 염라대왕의 명령을 받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온다. 각 마을 분향을 찾아 분향신이 지닌 문서를 자신의 것과 대조하며 데려갈 사람을 찾는다. 분향신을 앞세워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다. 문전과 조왕 때문에 영혼을 데려가지 못하다가 졸던 조왕을 붙잡아 다그쳐서 영혼을 데려간다. 이처럼 여러 신의 직능이 <차사본풀이>를 통해서 정리된다.

---

1) 이 점에 있어서는 <영동이 유래담>도 유사하다. 한편 <영동이 유래담>은 영등제의 기원설화로 주목할 수 있다.

### 3.

<차사본풀이>의 전개를 정리해보면 이야기가 겹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단락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범을왕 세 아들은 단명할 운명이다.
- (2) 범을왕 세 아들은 생명 연장을 위해 절에 가서 생활한다.
- (3) 범을왕 세 아들은 잠시 고향을 찾아가다가 과양생이 각시에게 살해당한다.
- (4) 범을왕 세 아들은 꽃으로 화하여 과양생이 각시의 아들로 태어난다.
- (5) 과양생이 각시의 세 아들이 과거급제한 뒤 동시에 급사한다.
- (6) 과양생이 각시는 김치원에게 신원한다.
- (7) 김치원은 염라대왕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어서 난처하다.
- (8) 김치원은 강림에게 누명을 씌워 염라대왕을 붙잡아 오라고 한다.
- (9) 강림은 우여곡절 끝에 염라대왕을 붙잡아온다.
- (10) 염라대왕에 의하여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 결과 범을왕 세 아들은 환생하고 과양생이 각시는 죽음을 당한다.
- (11) 염라대왕은 강림을 데리고 가서 차사의 일을 맡긴다.

억울하게 죽은 범을왕 삼형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되살아나서 생명을 연장한다. 먼저 과양생이 각시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나 꽃으로 환생하여 그 자식으로 태어나 급사함으로써 일차적인 복수를 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야기의 중간 단계일 뿐이다. 이 이야기에서 이들이 주인공인 것도 결코 아니다. 이들은 아직 환생하지 못하였고 과양생이 각시는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없다.

범을왕 삼형제의 환생과 복수를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구실은 다른 인물들이 담당한다. 김치원은 염라대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믿고 강림이로 하여금 염라대왕을 데려오게 한다. 강림은 저승 여행을 하여 직접

염라대왕을 데려온다. 염라대왕은 범을왕 삼형제를 살려내는 한편 과양생이 각시의 악행을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림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누구나 주인공 구실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지녔다. 염라대왕은 그렇다고 치고 김치원과 강림도 보통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저승 여행을 한 강림이 더욱 비범한 인물로 설정되었다.

관련 설화를 종합할 때, 염라대왕(함경 이본) - 원님(충북, 전북) - 강림(함경 지본, 제주) 등으로 주인공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근원의 이야기를 각 이야기의 종류에 적절한 방식으로 바꾼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천상이나 저승의 신에 대해서는 신화를 꾸며내지 않는 반면 이승을 왕래하거나 이승의 일을 돌보는 신에 대해서는 신화를 적극적으로 꾸며낸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강림은 염라대왕을 붙잡아오는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승에 가서 적베지를 까마귀에게 맡기는 실수를 한 탓에 재차 능력을 입증해야 했다. 이 대목에 동방삭 전승이 삽입된다. <차사본풀이>에 삽입된 동방삭전승은 성남시 탄천(炭川)의 지명유래담을 꾸미는 데도 쓰였다. 누군가 <차사본풀이>를 참고하여 꾸며낸 창작전설이 아닌지 의심된다.

동방삭 전승을 토대로 하면 <허웅애기본풀이>가 <차사본풀이>의 삽입본풀이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저승에 간 허웅애기가 말미를 얻고 이승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저승으로 붙들려가서 영영 다시 이승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어린 아이를 두고 죽은 여성 영혼을 위한 차사영맛이의 <차사본풀이> 말미에 <허웅애기본풀이>가 삽입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사본풀이>는 사정에 따라 동방삭 전승, <허웅애기본풀이> 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연되던 것일 수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허웅애기본풀이>는 특수본풀이가 아니라 삽입본풀이라고 해야 옳겠다. 삽입본풀이가 아니라 해도 특수본풀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실전본풀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른 유형의 본풀이에 대한 명명방식을 적용하자면 기타본풀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일반신본풀이라고도 할 수 없다. 허웅애기는 신이 아닐 뿐더러 독립적으로 구연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강

액막이로 삼천년을 살게 된 스만의 내력  
-스만이본풀이(멩감본풀이)



# 액막이로 삼천년을 살게 된 스만의 내력

## -스만이본풀이(멩감본풀이)

류진옥(제주학연구소 연구원)

### 태운 조상

스만이본풀이는 백년해골을 조상으로 모셔 거부(巨富)가 되고 백년해골의 도움으로 정명(定命)을 늘려 삼천년을 살았던 스만의 내력을 담은 본풀이입니다. 제주굿 의례 중 액막이에서 불리는 본풀이입니다. 새해를 맞아 정월에 일년의 행운을 비는 멩감제를 벌이는데, 이때에도 액막이를 위하여 불리는 이유로 멩감본풀이라고도 합니다.

스만이본풀이에서 스만이는 우연히 만난 백년해골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고 집안으로 모셔와 위하는데, 여기에는 제주도에 존재하는 ‘태운 조상’이라는 관념이 바탕하고 있습니다. ‘태우다’라는 말의 어의는 “어떤 특별한 복(福)이나 기능 또는 재주를 타고 나다.”입니다.<sup>1)</sup>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어 ‘태운 조상’은 ‘특정한 관계로 자신에게 내린 수호신’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태운 조상’인 백년해골을 집안의 조상으로 모신다는 점에서 스만이본풀이는 제주도 무속신화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조상신본풀이’와 비견할 만 합니다.

‘조상신본풀이’는 한 집안의 수호신으로 다양한 특성과 내력을 통하여 특정 집안의 조상으로 모셔지는 존재에 대한 내력담입니다. 스만이본풀이 또한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 할 수 있지만 조상신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특정 집안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상신본풀이가 아닌 일반신본풀이의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스만이본풀이는 자연 신앙의 대상일 수 있는 뼈-해골이 인격화하면서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죽은 동물의 뼈를 신성시하는 사상은 구석기시대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이 죽은 동물의 뼈, 특히 두개골을 동물의 영(soul)과 생명(life)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sup>1)</sup> 해골을 숭배하는 신앙 양상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 보편이 계승해온 신앙의 관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연물적 신앙 대상이 ‘현몽(現夢)’을 통해서 인격성을 얻고, 현몽을 통한 발화로 신앙민들에게 자신의 내력과 좌정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것은 비인격적 조상신의 특성 중 하나인데, 스만이본풀이의 백년해골 또한 동일한 방식인 현몽을 통한 발화로 스만이 부부에게 방액의 방도를 알려준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스만이본풀이

스만이는 세 살에 어머니 죽고 다섯 살에 아버지 죽어 문전걸식(門前乞食)하는 처지이지만 얌전하고 착실하여 동네 어른들이 뜻을 모아 손재주도 좋고 얌전한 부인에게 장가들게 하였습니다. 부인의 샅바느질로 살림을 꾸려가지만 늘 형편은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 스만에게 주면서 그것을 석 냥에 팔아 그 돈으로 아이들 먹일 식량을 사오라고 합니다.

스만이는 시장에 나가 머리칼을 팔아 생긴 돈 석 냥을 들고 이리 저리 구경을 하다 ‘마세조충’을 파는 사람을 만나고, 그 돈으로 식량은 사지 않고 충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식량은 사지 않고 이상한 물건을 사온 스만에게 부인은 대체 무엇이냐고 한탄을 하지만 스만이는 그 충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 산 저 산 굴미굴산 깊은 숲을 헤매고 다니지만 매번 빈손으로 돌아오는 스만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만이는 풀숲에서 난데없는 백년해골을 만나게 되고

1) 이은봉, 『증보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99, 30쪽.



자신에게 ‘태운 조상’ 이라 여겨 집으로 모셔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백년해골을 ‘상고팡’ 큰독 안에 모셔놓고 그날부터 기일제사 때나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제물을 올리면서 조상으로 위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만이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스만이가 서른세 살이 되던 해, 수명이 다한 스만이를 잡아가려고 저승에서 삼차사가 내려옵니다. 백년해골은 이를 알고 스만이 부부의 꿈에 나타나 이 액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줍니다.

야, 스만이 부배간(夫婦間)아, 느네덜은 어찌 그렇게 무심(無心)히 즘을 자느냐? 서른셋(三十三) 만기(滿期)가 되는 날 저승 염내왕(閻羅王)에서 널 잡으려 신앙삼체서가 느릴 듯 하다. 어서 바빠 일어남 연주단발신연맹무(剪爪斷髮身嬰白峁)하고 스만이가 날 만나던 삼도전거리예 가서 날날(來日) 밤이랑 쪽지평풍(屏風) 율둘르곡 비즈낭(樵子木) 즘상을 싱경 몹은 음식 단정히 출려놓곡 상촉권상(香燭勸上)을 지도토와, 너의 일름(名) 삼째(三字)를 써 가지고 제상 알(祭床下)에 부쳐두고 백보 밧젧(百步外)디 업데허영, 조용헌 밤에 어느 누게 불러도 데답(對答)을 말앗당 초편(初番) 이편(二番) 삼편(三番)을 불르건 머릴 들렁 데답하라. 기영하곡 스만이 부인이랑 날이 새건 신의성방(神房)을 청허여당 밧젧딜로 대통기를 비슥고 염넛대(閻邏竿)를 싱거근 저승 염내왕을 청허영 대시왕연맛이를 하웨, 대시왕(大十王) 저승 염내왕(閻羅王) 앞으로 관디(冠帶) 삼베 띠 삼(三)베 휘 삼(三)베 대(大)말치 소(小)말치 주석상동이 상백미(上白米) 중백미(中白米) 하백미(下白米) 동이 ㄱ득 지올려, 황바갈쇄 스만삼필(四萬三匹)을 데령(待令)하곡 천수방액(天授防厄)을 막암시민 알 도레 이시리라.1)

백년해골이 스만이 부부에게 내린 처방은 바로 시왕맞이굿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스만이 부부는 바로 심방을 청하여 시왕맞이굿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만이는 백년해골을 처음 만났던 자리에 제상을 정성 들여 차려놓고 백 보 밖에 숨어 저승 삼차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어두워지자 삼차사가 내려오는데 오던 길의 시장기에 제물이 잔뜩 차려져 있는 제상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삼차사는 제물로 급한 시장기를 채우고 나서야 그 상 아래 붙여 놓은 스만의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233쪽.

이름을 발견합니다.

“야, 우리가 놈의 음식 공이 먹어 목걸리는 법인디 이 일을 어찌하민 조으리까?” 1)

난감함에 삼차사는 스만이 이름을 삼세 번 불러보는데 자신들이 잡으려 간 스만이가 틀림없습니다. 스만이 이름으로 차려진 음식을 먹었으니, 공으로 먹을 수 없어 스만을 잡아갈 수 없게 된 삼차사는 이번에는 스만이 집에 가보기로 합니다. 집에서는 시왕맞이굿을 하여 방액(防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만을 잡지 못하고 저승으로 돌아간 삼차사는 저승 장적을 다시 보다가 방책을 하나 마련합니다.

일만장 베리(一萬丈硯)에 일천장(一千丈)의 떡을 길고 쯤이 7든 붓 한 즈록을 앗아내여 삼십(三十) 열십제(十字)에 한 그릇을 비껴붓데다.2)

스만의 명부에 있는 정명(定命)인 삼십(三十)의 한자에 한 획을 찍어 삼천(三千)을 만드는 것입니다. 삼차사는 스만을 데려오지 않은 일로 문책을 하려는 염라왕 동자판관에게 바뀐 명부를 보여줍니다. 결국 스만이는 방액으로 삼천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 놈의 음식 공이 먹어 목걸리는 법인디

백년해골을 만나기 전의 스만리와 스만리부인은 착실하게 살아가지만 늘 가난한 평범한 우리 이웃과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백년해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사실 스만리가 부인의 머리칼을 들고 장에 나가 마세조충을 사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승하는 스만리본풀이 이본(異本) 중 마세조충은 스만리에게만 팔 것 이라는 내용이 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주친 우연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운명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세계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태운 조상’이라는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235쪽.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236쪽.

관념이 바로 이러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만이본풀이는 제주굿 의례 중 액막이의 근거로 불리우는 본풀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승 삼차사를 물리치고 정명을 늘리는 방액 내용을 중심으로 구송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년해골은 스만이 부부의 꿈에 나타나 방책을 알려주는데 그 내용은 액막이 의례에 대한 자세한 묘사인 것입니다. 정성 들여 올릴 제물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린 제물을 취한 삼차사는 액막이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놈(他)의 음식 공이 먹어 목걸리는 범이니, 이 일을 어찌하민 조으리까?  
스만이는 잡을 수 벗어나고, ...1)

이는 저승 삼차사들의 입장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정성을 바치는 인간들이 신에게 요청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에 보답을 해달라는 기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차사는 결국 스스로의 방책을 내놓게 되고, 아주 간단하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담보하는 방책이 내려집니다. 빠침 획 하나로 삼십세의 정명이 삼천년의 정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 발상의 지혜로움에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놈의 음식 공이 먹어 목걸리는 범’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또한 깊이 새겨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부적절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경고일 뿐 아니라, 세속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탐심(貪心)’을 돌아보고 적절함과 적당함을 스스로 깨우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를 마음에 새기게 하는 스만이본풀이입니다.

### [참고문헌]

이은봉, 『증보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9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235쪽.



---

# 3강

삶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까닭, 지장본풀이

---



# 삶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까닭, 지장본풀이

강정식(제주학연구소 소장)

## 1.

<지장본풀이>는 곳에서 나까시리놀림이라고 하는 제차에 이어 노래한다. 마른 떡을 먹어 목이 마르니 <지장본풀이>로 풀어 올린다고 한다. 심방이 목이 말라 그렇다고 하기도 하나 이는 적절치 않은 설명이다.<sup>1)</sup> 달리 시루떡을 받아먹은 신전이 목이 마르니 이를 풀어드리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도 역시 그다지 시원한 설명은 아니다.

<지장본풀이>에 대해서 속시원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주도 무속 전반을 통해서 그 정체를 어느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지장본풀이>는 우리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아울러 주위 모든 사람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본풀이는 의례의 규범으로 기능한다. 일반신본풀이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일반신본풀이는 본풀이 자체로만 존재하는 사례가 드물다. 그렇다면 지장본풀이는 어떠한 의례와 관련이 있는지 찾을 필요가 있다. 지장본풀이도 어떤 의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다. 이 점은 지장본풀이도 예외가 아니겠다. 지장본풀이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풀이의 서두에서 ‘지장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본풀이 자체에서 어떻게 언급하는 사례가 없다. 그렇다면 ‘지장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해명하는 일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앞서서 정리하면 <지장본풀이>는 ‘스룩본풀이’ 혹은 ‘새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전상본풀이’라고 할 수 있는 <삼공본풀이>와 견주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1) “서말살 왕구벽 대독판 세미금시리 내놀렸더니 지관(祭官)은 마른 떡 먹언 애손 가슴이 7웁7웁흔 듯흡네다. 조소지(燒酒) 청감주(淸甘酒) 주침치명 지장만보살로 신평어 올리자.” 현용준, 『제주도무속 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p.288

새의 본초를 서수왕 뜰에서 찾는 새드림, 새 몸에 났다고 하는 <지장본풀이>의 결말을 아울러 해명해야 한다.

<지장본풀이>는 특별한 방식으로 구연한다. 심방은 서서 노래를 하고, 소미 둘이 북과 장구로 반주하며 복창한다. 서울곳으로 치면 만세받이 형식이다.

## 2.

<지장본풀이>는 사설이 단순하므로 그대로 옮겨 보자.

지장아 지장아 / 지장의 본이여,  
남산국 본이여 / 여산국 본이여  
남산광 여산은 / 애기가 잊이난 / 무이스 흐드라.  
동개남 삼동절 / 절수룩 드리난  
생불고장 느리고 / 예즈생불이 솟아나고  
흔슬이 나는 해예 / 어멍 독막립에 온조새 흐는고,  
두슬이 나는 해예 / 아방 독막립에 온조새 흐는고,  
시슬이 나는 해예 / 할망 독막립에 온조새 흐는고,  
늑슬이 나는 해예 / 할으방 독막립에 온조새 흐는고,  
다섯슬 나는 해예 / 설룬 어멍 똑 죽어가는고,  
으섯슬 나는 해예 / 설룬 아방 똑 죽어가는고,  
일곱슬 나는 해예 / 설룬 할으방 설룬 할망이 / 똑 죽어가는고,  
외삼춘 댁으로 비방을 나는고,  
개떡단 줍시에 / 중이 떡단 줍시에 / 술밥을 주더라.  
죽으랭 삼두전 거리에 / 늘여사부는고.  
옥황이서 부영생이 느린다. / 혼늘개랑 깔리라 / 혼늘개랑 덕으라  
흔슬 두슬 열다섯 시오세 / 나가가난.  
착흐댄 흔 소문이 / 동서로 나는구나.  
서수왕 서펜이 / 문수의 댁이서 / 문운장 오든고.  
팔제스주 글리난 / 좋아서 가는고. / 씨집을 가는고.  
예릴곱 나는 해예 / 설루운 씨어멍 똑 죽어가는고.  
예레듭 나는 해예 / 설루운 씨아방 똑 죽어가는고,  
열아옴 나는 해예 / 씨할망 씨할르방 / 똑 죽어가는고.  
꺄쑤물 나는 해예 / 설루운 낭군님 / 똑 죽어가는고.  
나년의 팔제여 / 나년의 스주여, / 어딜로 가리요.  
씨누이 방으로 / 비방을 나는고,  
죽일 말 흐는고 / 구울 말 흐는고,  
배룩이 닳되여, / 니가 닳되여,



어딜로 가리요. / 삼두전 거리로 / 나아사 가시고  
 동으로는 대스가 오시고. / 서으로는 심방이 오시고.  
 나 팔제 곱립서, / 나 스주 곱립서,  
 원청강의 팔제 스주 / 곱려사 가시고.  
 초본은 좋아도 / 중본은 곱썩다.  
 중본은 곱어도 / 말본은 좋썩다.  
 갱맹지 물맹지 / 일천동 흐십서,  
 시어멍 씨아방 / 원어멍 원아방  
 설루운 낭군님 / 초새납 흐십서.  
 이새납 흐십서. / 삼새납 흐십서.  
 천정판에 연ㄴ르 붙입서.  
 누애씨 청흔다. / 누애씨 탕온다.  
 털어서 가시고, / 애기즘 재우시고,  
 두불즘 재우시고, / 시불즘 재우시고,  
 너불즘 재우시고, / 흔밤을 먹시고  
 올으사 가시고 / 고치를 짓시고,  
 탕근 가시고 / 썰조상 가시고  
 감아서 가시고 / 놀아서 가시고  
 매여서 가시고 / 차서 가시고.  
 흔새 두새 열두새여, / 보름새여,  
 갱맹지도 일천동이, / 물맹지도 일천동이,  
 씨어멍 씨아방 / 원어멍 원아방  
 설루운 낭군님. / 초새납 흐는고,  
 이새납 흐는고, / 삼새납 흐는고,  
 천장판에 연ㄴ르 붙이난 / 새몸에 나는고  
 지장의 애기는 / 좋은 일 흐였저.  
 새몸에 나더라. / 천왕새 드리자.  
 지왕새 드리자. / 인왕새 드리자.  
 열두시만국 승험을 주는 새 / 조왜를 주는 새,  
 이 간이 정중에 / 승험조왜 주는 새랑  
 날날이 드리자 / 서수왕 딸애기  
 문수의 집이 / 씨집을 못가난  
 문ㄴ진 방안에 / 문결영 앓아서  
 좇아서 죽는고 / 즈청비 흐고 새움을 흐는고  
 눈으로 나는 건 / 공방새 나는고.  
 코으로 나는 건 / 코주리새여  
 입으로 나는 건 / 악심새여  
 열두시만국 승험을 주는 새랑 / 날날이 드리자.  
 장궁장새 주어헐썩.

-남제주군 중문면 강정리 남무 57세 박남하님D

### 3.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장아기씨는 불공을 하여 어렵게 출생한다. 자라는 동안 가족이 차례로 모두 죽는다. 외가로 가서 의탁한다. 외삼촌의 구박을 받다가 집을 나간다.<sup>1)</sup> 하늘 봉새의 보살핌을 받아 성장한다. 착하다는 소문이 나서 시집을 간다. 잠시 안정을 찾는가 하였으나 역시 가족이 차례로 모두 죽는다.<sup>2)</sup> 시집에서 나와 시누이 집으로 결방살이 간다. 시누이의 박대에 못이겨 집을 나선다. 중의 말에 따라 곳을 하기로 한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준비한다. 스스로 심방이 되어 시왕맞이곳을 한다. 할 일을 마친 뒤에는 죽어서 새로 환생한다. 사람들에게 온갖 흉험을 주어서 얻어먹는다.

지장아기씨가 서사의 주인공이면서 신이 된다. 이야기 속에서 곳을 준비하고 곳을 행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신으로 좌정한다.

먼저 눈에 띄는 사실은 서사가 단순하다는 점이다.<sup>3)</sup> 인물은 여럿 등장하지만 개성적인 존재는 없다. 인물간의 갈등 양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지장아기씨와 세계의 갈등이 유일하다. 세계에서 다른 인물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드러난 환경조차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야기 자체가 흥밋거리를 마련할 만한 요소가 없다. 의례적 의미가 서사적 흥미를 압도하는 사례이다. 의례적으로도 혼란상이 많다. 방향성이 중요한 해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지장본풀이>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되지 않는다. 비극이 거듭될 뿐이다. 그것도 비슷한 양상으로 거듭된다. 어디에서도 흥미 요소를 찾기 어렵다. 본가, 외가, 시가 사람 모두 차례로 죽는다. 본가에서 태어나서 네 살까지, 외가에서 잠시, 시가에서 잠깐 편안한 시절도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주위 사람이 차례로 죽는 일이 벌어진다. 지장아기가 낳은 자식마저 죽는다고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전혀 모른다.

혼인하고 아이 낳는 대목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이 죽는

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 pp.163~165.

1) 외가 가족들도 차례로 모두 죽는다고도 한다.

2) 아이를 낳았으나 그 아이마저 죽는다고도 한다.

3) 이는 <지장본풀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적은 이유이기도 하고, 연구가 심화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이 생긴다. 이유도 모르는 일이 속절없이 벌어진다. 다양한 고난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위 사람이 죽는 일이 거듭된다. 여기에 지장아기씨의 잘못이 개입되는 일도 없다. 시누이 집에서 핍박 받는 일이 유달리 설정되었을 뿐이다. 시누이를 제외하고는 개성이 부여된 인물이 없다. 남편조차 개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본풀이에서 혼인을 하거나 자식을 낳는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지장본풀이>에서는 이마저도 모두 죽음으로 연결하여 버린다. 이는 곧 인물간의 갈등이 문제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시누이는 지장 아기씨를 핍박하는 존재로 설정된 유일한 인물이다. 그러나 지장아기씨를 핍박한 악인이지만 그에 대한 징벌적인 결과는 따르지 않는다. 선악의 문제나 갈등 양상은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지장아기씨 주위 사람이 모두 죽지만 시누이는 예외이다. 관련 후일담조차 없다. 지장아기씨를 멀리한 덕에 오히려 무사하였다고 풀이할 여지도 있다. 이 대목은 시집살이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집살이 관련 장애로 보기도 어렵다.

<지장본풀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위에 정리한 바와 같이 이야기가 그저 단순할 뿐이다. 본풀이 가운데서도 가장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이야기가 여전히 전승 되는 것 자체가 흥미롭다.

<지장본풀이>는 새남굿, 새드림 등 새와 관련된 의례의 규범을 담고 있다. 관련 문맥이 제시되지 않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좋지 않은 일이 거듭되면 새남굿을 해야 한다. 작은 일은 새가 들어서 그러한 것이니 그때그때 처리해야 한다. <지장본풀이>는 ‘거듭’ 되는 좋지 않은 일을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이다. 나쁜 일은 그때마다 풀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지나치면 결국 큰일을 당하고 만다. 새는 한을 품고 죽은 조상의 영혼들이 관련 되어 있는 존재이다.

<지장본풀이> 끝에는 새드림 말명을 붙이고 비념 사설로 마무리한다.<sup>1)</sup> 지장 아기씨가 새로 환생한다고 해놓고 새드림 말명을 붙이니 둘의 연관성이 긴밀하다. 새는 날짐승이지만 사기(邪氣)에 해당하는 사(邪)이

1) 새드림은 굿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부정(不淨)을 정화하는 순서이다. 온갖 새를 쫓는다는 사설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의 온몸을 칼로 찌르는 모양을 하기도 한다.

기도 하다. 소리가 비슷한 것을 빌미로 하여 새[鳥]와 사(邪)를 필요에 따라 바꾸어 가며 쓴다. 이때의 사(邪)는 사람들 주위를 떠돌아 다니며 불운(不運)을 일으켜서 얻어먹는 존재이다.

<지장본풀이>는 사(邪)의 근원을 풀이하는 이야기이다. 지장아기씨 주위의 사람이 차례로 죽은 까닭은 이 사(邪)의 탓이다. 제주도 무속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굿을 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지장본풀이>는 의례를 해야 하는 사정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새드림의 규범을 담은 본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장본풀이>는 <삼공본풀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국면으로 전개된다. 지장아기와 가문장아기의 존재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점에서는 상통한다. 지장아기가 존재하는 곳에 불행이 함께 하고, 가문장아기가 존재하는 곳에 행운이 함께 한다. 이로 보아 <지장본풀이>는 ‘스룩본풀이’라고 할 수 있고, <삼공본풀이>는 ‘전상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스룩은 불행만이 존재하나 전상은 행운과 불행이 공존한다.

새의 본초(本初)로는 지장아기씨, <세경본풀이> 서수왕 딸아기가 거론된다. 새드림은 본풀이가 아니다. 새드림의 근원이 되는 본풀이는 따로 존재하는 셈이다. <세경본풀이>는 세경신의 본초일 뿐이다. 따라서 새의 본초는 <지장본풀이>가 유일하다. <세경본풀이>는 국부적인 관련성 탓에 덧붙여진 것일 뿐이다. 흔히 새는 한을 품고 죽은 영혼의 화생으로 설정되지만, 지장아기씨는 그러한 새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산 뒤에 새를 풀어주고 자신이 새로 화생한 사례이다.

#### 4.

<지장본풀이>는 상위신에 대한 의례를 마치고 하위신들을 위한 의례를 행하는 가운데 푼다. 앞서 나까시리놀림을 하고 시루떡을 신전에 바친다. 이는 사자와 그 뒤를 따르는 하위신을 위한 것이다. <지장본풀이> 다음에는 군병질을 친다. 군병질은 전쟁이나 큰 사고로 죽어 자손들로부터 온전하게 제향을 받지 못하는 신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들에 앞서 <지장본풀이>를 풀어내니,

<지장본풀이>에서 다루는 존재는 사자의 뒤를 따르는 하위신보다는 하위의 신이면서 군병질보다는 상위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장아기씨의 위상이 어느정도 드러난다.

본풀이 사설에 <세경본풀이> 내용이 삽입되기도 한다. 여러 모로 보아 본풀이가 온전한 상태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례적으로도 그 의미가 분명치 않다. 본풀이 말미에서 “누가 일파 지장인고(누가 이룬 지장이냐?)” 고 하면서 열명(列名)을 하는데, 이 대목을 근거로 하면 사람들이 굿을 하게 된 내력을 풀이하는 본풀이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sup>1)</sup> 지장아기씨가 한 굿을 전새남이라고 한 것도 흘려 넘겨서는 곤란하다. 전새남은 시왕맞이와 같은 말이니 별 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새남’에 대한 풀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지장본풀이>는 ‘새’가 ‘난’ 내력을 풀이하고 있다. 다시 ‘지장’에 주목하면 지장은 지장(支障)이다. 누가 정성을 들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장을 일으켜서’ 풀어내기 위하여 굿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지장은 다시 지장(志場)이기도 하다. 이때 ‘지’는 정성\을 의미한다. 정성을 하는 굿청을 마련한 내력을 풀이하는 셈이다. 새는 지장으로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장본풀이>는 빌미만 있으면 가져다 쓰는 제주 무속 사회의 전통이 잘 드러나는 사례이다. 빌미가 되는 것을 있는 대로 활용하다 보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

1) 열명(列名)은 정성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이른다.



# 4강

세경본풀이

- 오곡 씨와 농경의 유래, 땅에 디딘 삶을  
돌보는 '세경의 덕'





# 세경본풀이

## - 오곡 씨와 농경의 유래, 땅에 디딘 삶을 돌보는 '세경의 덕'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

### 1. 오곡 씨와 농경의 유래, 세경본풀이

짐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이 부자로 잘 살아도 오십이 될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였다. 짐진국 대감은 얻어먹는 거지도 아이를 낳아 웃으며 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하루는 동개남 중이 시주를 받으러 집에 온 것을 계기로 절에 가서 정성을 드리고는 합궁일을 받아 딸을 얻었다. 자칭하여 나온 아기이니 자칭비라고 이름 지었다.

자칭비는 열다섯이 되어 어느 날 느진덕정하님과 함께 주천강 연못에 빨래를 하러 갔다가 글공부하러 내려오던 하늘옥황 문곡성 아들 문왕성 문도령을 만났다. 자칭비는 남자로 변장하여 남동생처럼 꾸미고는 자칭도령이라고 하면서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하러 갔다. 함께 공부를 한 지 두 해가 지나가자 자칭비는 문도령이 자신이 여자임을 알아차릴 것을 염려하여 피를 내어 모면하였다. 삼년이 되니 하늘옥황에서 문도령에게 편지를 보내 서수왕아기에게 장가들라고 하였다. 자칭비도 글공부를 그만두기로 하고 문도령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못에서 목욕을 하며 자신이 여자임을 문도령에게 알렸다.

문도령은 자칭비의 집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 뒤 증표를 주고 하늘 옥황으로 올라갔다. 자칭비는 돌아오지 않는 문도령을 기다렸다. 자칭비는 하루는 게으른 하인 정이엇인 정수남이에게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오라고 하였다. 정수남이는 산에 올라가서 일은 하지 않고 소와 말을 모두 잡아먹고 옷과 물건을 도둑맞은 채 돌아와서는 자청비에게 문도령을 보았다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자청비는 정수남이와 함께 문도령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자청비를 범하려는 정수남이의 여러 수작을 꾀를 내어 모면하고 결국 정수남이를 죽였다.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정수남이를 죽였다고 말하고 부모가 화를 내니 남자로 변장하여 다시 집을 떠났다.

자청비는 도중에 아이들에게서 부엉새를 얻어 서천꽃밭에 새를 던져둔 뒤 황세곤간을 만났다. 황세곤간은 자청비에게 서천꽃밭에 나타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부엉새를 잡아주면 사위를 삼겠다고 말하였다. 그날 밤 자청비는 정수남이 혼정에게 부엉새 몸으로 환생하여 오라고 하여 새를 잡았다. 황세곤간은 약속대로 자청비를 말장딸아기와 혼인시켜 사위로 삼았다. 자청비는 혼인하고서도 과거시험을 핑계로 말장딸아기에게 몸허락을 하지 않았다. 과거보러 간다면서 서천꽃밭의 사람 살리는 꽃들을 챙기고는 죽은 정수남이를 살려서 집에 데려갔다. 부모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집안 망칠 딸이라며 다시 자청비를 내쫓았다.

자청비는 또 길을 떠나고 주모할망 집에 머물게 되었다. 주모할망은 자청비가 비단 짜는 솜씨가 좋으니 수양딸로 삼았다. 마침 주모할망이 문도령의 혼인에 쓰일 비단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이름을 새겼다. 문도령은 자청비가 짠 비단을 받고 자청비를 만나러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자청비는 반가운 마음에 바늘로 손가락을 찔렀는데 문도령은 부정하다며 돌아가 버리니 주모할망은 자청비를 내쫓았다.

자청비는 중의 행색을 하고 시주를 다니다가 하루는 문도령의 명으로 자청비가 목욕하였던 물을 찾고 있는 하늘옥황의 궁녀들을 만났다. 자청비는 신분을 밝히고 그 물을 떠서 궁녀들과 하늘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나 증표를 확인한 뒤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 문도령은 부모에게 서수왕에 장가들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부모는 자청비가 며느리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한 뒤 며느리로 삼았다. 혼인을 이루지 못한 서수왕 따님아기는 화가 나 결국 죽고 새의 몸에 환생하였다.

자청비와 문도령이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보쌌하려고 하였다.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서천꽃밭

말갯딸아기에게 가서 선보름을 살고 자기와는 후보름을 살자고 하며 문도령을 보냈다. 문도령이 돌아오자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궁 안의 모락을 알리고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문도령은 그만 마지막에 웨눈백이 할망의 술을 마셨더니 죽어버렸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데려오고 살아있는 듯이 꾸며 보쌈하려던 이들의 수작을 물리쳤다. 이어 서천꽃밭의 꽃을 따다 문도령을 살렸다.

이때 마침 천자국에 난리가 생기니 자청비는 서천꽃밭 수레멜망악 심꽃으로 난리를 막았다. 천자왕이 땅을 내어주려 하자 자청비는 오곡 열두 신만곡을 주라고 하고는 문도령과 함께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인간세상에서 정처 없이 배고파 떠도는 정수남이를 만나고는 정수남이에게 먹을 것을 준 이에게 대풍년을 만들어주었다. 자청비는 메밀 씨를 잇은 것을 깨닫고 뒤늦게 옥황에서 다시 씨를 받아왔다. 문도령은 상세경으로, 자청비는 중세경으로, 정이엇인 정수남이는 하세경으로 들어섰다(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 **자청비** : 짐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이 절에 정성을 드려 낳은 딸. 문도령과 만나 인연을 맺은 뒤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혼인에 이름. 나중에 죽은 문도령을 살리고 천자국의 난리를 막은 뒤 천자왕으로부터 오곡의 씨를 얻어다가 중세경이 되어 인간 세상에 농사를 관장함
- **하늘옥황 문왕성 문도령** : 자청비를 만나 인연을 맺은 뒤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혼인에 이름. 나중에 자청비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상세경이 됨
- **정이엇인 정수남** : 자청비 집의 하인. 자청비를 희롱하다가 죽음에 이르렀지만 다시 자청비의 의해 살아난 뒤 나중에 인간 세상의 하세경이 됨
- **서수왕 딸아기** : 문도령과 혼인할 사이였지만 파혼을 당하자 막편지를 불살라 먹고는 자결한 뒤 새의 몸에 환생함
- **황세곤간** : 서천꽃밭을 관리함. 자청비가 꽃밭의 문제를 해결하자 사위로 삼음
- **황세곤간 딸아기** : 남장한 자청비와 혼인함

- **주모할망** : 자청비를 수양딸로 삼았는데 자청비와 문도령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청비를 내쫓음
- **문도령의 부모** : 자청비가 며느리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결국 며느리로 삼음

세경본풀이는 장대한 서사내용을 가지고 있는 신화이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 가운데서도 초공본풀이, 차사본풀이와 더불어 긴 구연 시간을 자랑한다. 세경본풀이는 여러 주인공이 등장하여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사건 전개도 다양하다. 그 가운데 자청비와 문도령의 애정 관계를 바탕으로 정이었던 정수남이의 역할도 눈여겨 볼만하다. 자청비의 여성 영웅적 면모가 두드러지고 결국 농경신이 되는 내력을 담고 있다. 혼인(婚姻)과 관련한 일부 풍속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활용된다. 큰굿뿐만 아니라 마을에 따라서는 영등굿, 잠수굿 등에서도 ‘요왕세경본풀이’ 라는 이름으로 구연된다. 현재 문화콘텐츠 관점에서도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사진 4> 세경본풀이



<사진 5> 세경본풀이(테우리청 지사권)

## 2. 땅에 디딘 삶을 돌보는 ‘세경의 덕’

### [농경 관장]

세경본풀이는 오곡 씨의 유래와 농업, 목축업 등 생업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실 세경본풀이의 대부분 서사는 농경과 관련해 특별히 전개되는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청비가 대감 댁의 자식이고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점과 그 스스로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도 없다. 문도령도 하늘옥황에 속하는 귀한 존재이며 직접적인 농사활동을 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자청비가 열두 신만곡 오곡 씨앗을 가지고 내려오는 농경신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풀이에 드러난 애정관계의 내용들이 여성으로서 자청비의 농경신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한다.

문도령은 하늘의 존재이므로 농경에 반드시 필요한 천체 기후(비, 태양 등)와 관련된다고 보고 있고 상세경을 맡는다. 자청비는 실질적인 농경신으로 변란을 막아내는 공로를 인정받아 오곡의 씨앗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중세경을 차지한다. 정수남이는 칠월 백중에 마블림을 받아먹는 하세경, 즉 목축신으로 좌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풀이에서는 상·중·하로 위계적 질서로 나누어져 있는 듯하지만, 현실에서 이것들은 모두 하나로 조화가 되어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청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도 와야 하고 적정한 수준의 태양도 내리쬐어야 한다. 농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가축들이나 반농반목(半農半牧)의 상황에서 우마의 증식도 중요한 문제이다. 제주 땅의 대표적 농사법의 하나인 ‘바령팻’ (糞田)을 생각한다면, 중세경인 자청비와 하세경인 정수남이가 현실생활에서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지 잘 상상할 수 있다. 자청비와 정수남이의 결합이 서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나중에는 농경신의 지위에 나란히 매겨진 것은 이러한 현실의 반영일지도 모른다.

자청비는 칠월 열나흘에 하늘로부터 오곡 씨앗과 열두 신만곡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와 농경신으로 좌정한다. 농경의 기원이 드러난다. 이때 메밀 씨는 잊어버리는 바람에 하늘로 가서 다시 가져왔다고 한다. 메밀의 생육이 다른 작물보다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생태환경도 본풀이에 반영되고 있다. 한편 지상에 내려와 굶주리는 정수남이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밥을 준 늙은이에게는 풍년을 주고, 밥을 주지 않은 이들에게는 흉년을 일으키는 모습은 공동체의 유대까지 생각하게 한다. 농경생활에서 서로 돕고 보살피는 행동들은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본인 셈이다.

제주 무속신앙에서 세경본풀이를 구연하면서 ‘먹은 이도 세경의 덕, 입은 이도 세경의 덕, 행궁발신 하기도 세경의 덕, 세경 땅에 집을

지어 살고, 죽어 세경 땅에 업토감장 하는 일’ 이라고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한마디로 세경본풀이는 땅에 디딘 인간의 삶을 돌보는 이야기다. 의식주 걱정 없이 여러 생업활동에서 안정적인 생산물을 얻으며 몸 건강하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 [정수남이와 목축]

자청비는 문도령과 여러 사건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또한 그만큼 자청비가 정수남이와 가지는 관계도 만만치 않게 전개된다. 정수남이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중간에 끼어들어 자청비를 겁탈하고자 애를 쓴 존재다. 비록 자청비의 하인이지만 엄청난 식성과 노동력을 겸비한 인물로 말과 같은 가축의 이용법에 대해서도 능통하다. 자청비의 부모는 시집가 버릴 자청비보다도 부릴 수 있는 하인인 정수남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정수남이는 문도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식하고 더럽고 야성적인 존재로 그려져 있다. 그는 자청비라는 존재와 성적행위를 하고 싶은 본능적인 존재이다. 그가 자청비와 함께 산으로 가서 한 행위는 자청비와 문도령이 따듯한 방 안에서 ‘병풍놀이’를 한 것에 견주면 더욱 야성적이고 노골적이며 생산적인 행위일지도 모른다. 이는 ‘세경놀이’에서 한 여자가 들판의 ‘어떤 놈’에게 ‘벽장동티’ 당한 것과 유사하기까지 하다.

정수남이의 못된 행동은 자청비를 겁탈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신분과 계급간의 차이를 뛰어넘거나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미래에 장차 예정된 농경신과 목축신의 뿔 수 없는 관련성을 암시한다. 본풀이 후반부에 상·중세경이 내려와 보니 정수남이가 밥도 못 먹고 지내는 것을 보고 자청비는 그를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 살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더라도 둘 사이의 관계는 분명 이어져 있다.

정수남이는 평소 농업생활을 실현하고 목축기술을 가진 전문가였으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격이었다. 농업 풍요와 관련된 하늘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문도령이 상세경이 되었다면, 자신은 농경보다 하위로 여겨지거나 또는 농경의 보조적인 분야로 간주되던 목축을 맡는

신격으로 좌정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청비와 일정한 정도 성적교감을 나누고자 한 면모를 보임으로써 자청비의 농경신적인 능력을 자신도 일부 공유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곡물의 번식만큼 우마의 번식도 당시 사회에서는 중요한 일이었다.



〈사진 6〉 목축업(테우리, 제주학이카이브)

### [자청비의 여성·문화 영웅적 성격]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문도령과 만난 뒤 문도령과 함께 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글공부를 하러 떠나는 것이나, 글공부 과정에서 여성임이 밝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획하는 여러 가지 지혜 등도 돋보인다. 자신에게 닥친 여러 차례 위기를 넘기고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변란을 진압하고,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좌정할 것을 정하는 것들이 당차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비단을 짜거나 농사와 관련하는 등 문화영웅적인 모습까지 보여준다.

### [세경놀이]

세경본풀이는 ‘세경놀이’라는 굿놀이와 관련이 있다. 세경놀이는 세경신에 대한 놀이의례의 성격만이 아니라, 풍농을 위한 유감주술적인 의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밭에서 성적행위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팽두리를 낳고, 이 팽두리가 밭을 일구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임으로써 많은 곡식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경놀이에서는 씨뿌리기, 밭 다지기, 김매기 등 제주도에 농사를 짓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준다. 곡식을 거두고 이를 집안에 들여놓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집안에 풍요가 깃들기를 소망한다. 여러 종류의 제주도 민요(노동요)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글은 제주 신화학교 강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참고문헌을 따로 밝히지 않음)



<사진 7> 세경놀이(김수남 사진)



<사진 8> 세경놀이(김수남 사진)



---

# 5강

가족 역할과 거주 공간의 신성화,  
<문전본풀이>

---



# 가족 역할과 거주 공간의 신성화, <문전본풀이>

이현정(제주대학교 강사)

제주 심방들은 <문전본풀이>를 구연하며, ‘들 적에도 문전, 날 적에도 문전(시여 나도 문전 시여 들어도 문전)’, ‘문전 모르는 공사 없다.’ 라는 말명을 실피 읊는다. 이 말명에는 한 집안을 오가는데 문전을 거치지 않을 수 없으며,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정을 문전신이 코콜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집안에서 벌이는, 벌어지는 온갖 일은 문전신(문전감상)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는 관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자칫 문전을 ‘문(門)’ 이라 단순하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다. 집안에서 문은 몇 개든 있다. 침실, 부엌, 측간에도 문이 있다. 어찌 보면 정낭도 일종의 ‘대문’ 이다. 문전신은 분신술을 써서 이들 문문마다 좌정하거나 이 문 저 문 옮겨 가며 지켜 서지는 않는다. 문전은 정확하게 ‘상방(마루)’ 의 앞문을 의미한다. 그 공간적 기능이나 의미를 현관(玄關)에 빗대어 쉬이 이해할 수 있다. 상방은 현관과 마찬가지로 집안 대부분의 공간과 연결되는 나들목(출입구)이자 모든 생활(대소사)이 벌어지는 중심에 놓인다. 문전신은 바로 이 상방의 길목을 지켜 서는 댁내 감상관이다. 문전이 신성성을 부여받고 인격화 되며 공간 개념을 넘어 ‘가족’ 이란 집단적·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비중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문전신인 것이다. 이러한 문전신의 좌정 내력을 말하는 신화를 <문전본풀이>이라 한다.

제주에서 <문전본풀이>는 꽤 폭넓은 전승 범주를 지닌다. 심방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른 본풀이에 비하여 <문전본풀이>는 꽤 잘 알고

있는 편이다. 게다가 ‘남녀 구분 없이’ 이야기의 큰 흐름을 꿰어 안다는 점도 유다르다. 굿이나 본풀이와 같은 무속 신앙이 여성들만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문전본풀이>가 흔드는 셈이다. 여기에는 무속 신앙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육지부와 다른 제주만의 특별한 의례, ‘문전제(문전고사)’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

문전제는 명절은 물론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뒤에도 지낸다. 집안에 소소한 별일이 있으면 매 건마다 문전신에게 고하는 문전제를 지내기도 한다. 기제사에도, 새 식구를 맞이하는 첫 관문에서도, 아들이 군대를 갈 때도, 손주가 수능을 칠 때도, 물 건널 일이 있을 때도 제주 사람들은 문전에 꼭 정성을 드렸다. 집안 내력이란 가족구성원들이 함께하면서도 제각기 맞이하는 삶의 다양한 분기점들이 켜켜히 쌓여 가며 다져지는 것인데, 문전신은 늘 한 집안의 대소사를 가족 구성원과 함께한다. 그만큼 제주에서 문전신이 지니는 신앙적 의미와 의상은 특별하면서도 일상적이다.<sup>1)</sup>

<문전본풀이>에 따르면 문전신을 차지한 주인공은 남선비와 여산부인의 일곱째 막내아들인 녹디생인이다.<sup>2)</sup> 남선비와 여산부인은 아들만 일곱을 낳았는데, 그 중에 녹디생인이 가장 “똑똑하고 역력”했다. 여산부인으로 둔갑한 노일저데귀일의 딸을 유일하게 알아챈 이도, 노일저데귀일의 딸의 피를 간파하고 이를 타개할 계책을 마련하고자 앞장 선 이도 녹디생인이었다. 눈썰미가 예리하고 영민하여 악재와 위기를 막아서는 솜씨가 남달라, 집안팎에서 벌어지는 제반 사정을 살피고 가족의 안위를 수호하는 가신(家神)으로 좌정하기에 더없이 알맞은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 할 수 있다.<sup>3)</sup>

1) 문전신앙과 문전제가 제주만의 특별한 토속적·전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흥미로운 대상이다. 문전제는 정기적이면서 비정기적으로 치러진다. 문전철같이(벨롱갱이), 포제 혹은 명절 제사 이후에 지내는 문전제 등은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것인 반면, 기제사나 잔치 또는 이사 시 행하는 문전제, 가족구성원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치르는 문전제 등은 비정기적인 의례이다. 문전제와 관련된 문전신 신앙은 그 토대를 민속(무속) 신앙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례의 성격을 살펴보면 무속식(굿 또는 비념)뿐만 아니라 유교식, 불교식으로도 행해지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런 제 사정들은 육지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다.

2) 이본에 따라 달리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이나 인물의 특성을 살필 때, 문전신의 신직을 부여받는 대상은 그에 걸맞는 기지와 능력의 소유자인 녹디생인이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명 또한 각양각색이다. 이 글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남선비, 여산부인, 녹디생인, 노일저데귀일이 딸로 통칭한다.

3) 강정식 역시 녹디생인이 노일저데귀일이 딸이 어머니의 행세를 하려고 하지만 단번에 그 정체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를 검증하고 결국 그 시도를 좌절시키는 행적들은 집안의 출입구를 지키면서 드나드는 모든 것을 확인하여 집안을 지켜주는 존재인 문전신의 직능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더불어 문전신의 기능과 역할을 <문전본풀이> 제차에서 행해지는 <오방기 품>과 관련하여 해석하였다. (강정식, 『제주굿 길잡이의 이해』,

녹디생인이 문전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는 처첩 간의 갈등이 빚어낸 일련의 비극이 자리한다. 본처인 여산부인과 그 자리를 탐하려든 노일저데귀일이 딸,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놓인 몰명한 남선비의 삼각관계가 문전신 좌정을 견인하는 핵심 사건이다. 이 삼각관계 서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노일저데귀일이 딸의 악행인데, 남선비를 등쳐 먹고 여산부인을 주천강 연못에 빠뜨려 죽인 것도 모자라 일곱 형제를 몰살하려 드는 전형적인 계모형 인물이다.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 각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희대의 악녀가 노일저데귀일이 딸이다. 제주에서 통용되는 심한 욕 중에 “꼭 노일저데귀일이 딸 년추룩”이란 표현이 있었을 정도이다. 신격에 향한 세간의 평가와 인식이 어떠한지 알 만한 사례이다.

인과응보이지만 노일저데귀일이 딸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죽은 뒤에도 온몸이 찢어발겨지는 이중고를 겪고 나서야 ‘칙도부인(벤소 동토)’으로 좌정하게 된다. 남선비 역시 제대로 된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몰명하게만 굴었던 탓에 정낭에 목이 걸려 죽는 순탄치 못한 결말에 이른다. 이후 남선비는 올레와 정낭을 지키는 신인 ‘올레 주목 정살지신’으로 좌정한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고된 여정을 자처했고 남편에게 몸쓸짓을 한 노일저데귀일의 딸까지 포용하려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여산부인만이 억울한 죽음에서 되살아나 ‘조왕할망’으로 좌정하여 대우 받는다. 노일저데귀일이 딸, 남선비, 여산부인 모두 가신(家神)의 직능을 지닌 신격들이지만, 관련 의례의 양상을 따지면 이들 간의 위계가 꽤 분명하게 드러난다.<sup>1)</sup>

민속원, 2015, 248쪽.)

1) <문전본풀이>에서 조왕신으로 좌정하는 여산부인은 심지가 곧은 어진 인물이라 할 만하다. <조왕비념>, <조왕제(정초 의례, 정화수 의례)>, 기제사 등의 관련 의례나 문전제와의 관계를 살필 때, 조왕신은 문전신 만큼이나 중요한 신으로 위한다. 그런데 제주 무속에서 조왕신에 대한 인식이 본풀이 상 여산부인의 이미지와 유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흥미롭다. 조왕신이 소위 ‘소도리쟁이’라는 관념이다. <문전본풀이>의 이본 가운데 여산부인이 위험한 처한 아들들을 구하기 위하여 꿈에 나와 살 방도를 알려준다는 대목과 판이한 인식이다. 예를 들면 조왕신이 옥항에 올라가 집안의 시시콜콜하게 잘잘못을 다 고해 바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어 조왕신을 잘 위해야 한다는 인식이나 조왕신의 말실수 때문에 차사가 집안에 들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 등이다. 유사한 속성을 지닌 신격으로는 ‘청태산 마고할망’이 있다. 특히 조왕신의 사명신(司命神)적 속성은 대개 우리나라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정살지신으로 좌정한 남선비에 대한 의례는 <각도비념>에서 행해졌지만 지금에 와서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은 큰굿에서 <각도비념>의 주요 제차인 <할망비념>, <칠성비념>, <조왕비념> 등이 끝난 뒤 잡식 결명을 할 때 올레 입구에서 여러 군병들과 함께 주목정살지신을 언급하는 정도이다. 녹디생인의 다섯 형이 좌정한 신격인 오방토신에 대한 의례 역시

<문전본풀이>는 거주 공간의 상관 관계는 물론 가족 역할이나 이들의 관계까지 신성화 한다. 처첩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관계, 모자 관계 등이 맺는 사건들이 제주에서 여러 가신의 내력담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신화가 이들 관계를 제주 특유의 주거 공간, 가옥 구조와 결부시켰기 때문이다. 달리 전승공동체가 가족 관계, 가족 역할의 기대 상을 가옥 공간, 가옥 구조와 연관하여 이해하며 가족 단위의 생활 규범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상호 기대하는 바(역할)를 수행하려 애써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습속이 제주 특유의, 유례없는 안택(安宅) 신앙과 <문전본풀이>를 마련하는 기저가 되었다.<sup>1)</sup>

<문전본풀이>는 주거 공간 가운데 올레, 상방, 부엌, 측간을 주요 공간 배경으로 삼았고, 이 중에 부엌과 측간의 관계망을 보다 도드라지게 형상화 하기 위하여 ‘처첩 관계’를 등장시켰다. 그리고는 두 공간의 관계 양상을 ‘선한 본처와 다슴어멍(계모)의 갈등’, ‘다슴어멍의 악행’이라는 서사 장치로 특화하였다.<sup>2)</sup> 하지만 <문전본풀이>만을 두고 유독 제주사람들이 계모를 대하는 인식이 적대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슴어멍’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문전본풀이> 외에도 제주 설화의 면면에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에서는 계모가 의붓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설화도 전승되거나와,<sup>3)</sup> ‘시앗 좋으면 세 몸이 한 몸 된다.’, ‘시앗이 동서보다는

주목정살지신 관련 의례 양상과 마찬가지로인 상황이다. (<각도비념>에서 위해지는 신격들과 자세한 제차 정보는 강정식, 앞의 책, 254~259쪽에 상세히 거론되어 있다.)

- 1) <문전본풀이>의 동계서사물은 육지부에서도 전승된다. 이는 <문전본풀이>는 제주 특유의 것이지만 그 서사 일개의 토대는 육지부의 것을 받아들여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대표적으로 전북·전남지역의 <칠성풀이>가 <문전본풀이>와 많이 비교된다. 그밖에 함흥의 <살풀이>, 평양의 <성신굿> 등도 <문전본풀이>의 동계서사물로 분류된다. 전북·전남 지역의 <칠성풀이>의 줄거리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다. 칠성님은 열일곱에 질대부인(매화부인)과 혼인하는데, 아들 일곱 쌍둥이를 낳는다. 칠성님은 금수나 벌일 수 있는 일이라 하여 질대부인(매화부인)을 소박하고 육녀부인에게 후실 장가를 든다. 질대부인(매화부인)은 일곱 아들을 버리려다 중의 충고를 듣고 데려다 키운다. 아들들은 장성한 뒤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칠성님을 찾아 간다. 이를 본 육녀부인은 거짓 병을 앓는 체하며 점장과 짜고 아들들의 애를 먹어야 한다며 칠성님을 속인다. 칠성님이 아들들을 죽이려 하자 금사슴(큰짐승)이 나타나 아들들을 구하고 자신의 애를 내어준다. 육녀부인은 이 애를 거짓으로 먹는 체하다 발각된다. 일곱 형제는 육녀부인을 응징하고 칠성신(혹은 북두칠성)으로 좌정한다. 육녀부인은 죽어 두더지, 뱀, 모기, 깔다귀 등으로 변한다.
- 2) 이는 <문전본풀이>가 <칠성풀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문전본풀이>는 처첩 간의 갈등이 주가 되는 서사이지만, <칠성풀이>는 계모와 본처 소생의 아들들의 갈등을 주로 삼는다. 또한 <문전본풀이>의 노닐저데귀일이 딸은 어디까지나 첩이자 본처 소생에게 인정받지 못한 ‘어미’이다. <칠성풀이>의 육녀부인은 후실일지언정 본처와 대등한 지위를 획득한다. 무엇보다 <문전본풀이>와 <칠성풀이>의 차이점은 <문전본풀이>는 남선비와 노닐저데귀일이 딸을 축출하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데 반하여, <칠성풀이>는 칠성님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아 본래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통하여 제주의 <문전본풀이>가 세대의 대립과 전환의 문제, 가족 관계나 가족 질서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짐작할 수 있다.
- 3) 대표적인 예가 <오훈장과 그의 계모>라는 설화이다. 『제주설화집성』에 수록되어 있다.

났다.’ 는 속담도 전래되고 있다. 그러니 제주 역시 여느 지역처럼 계모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선이 존재한다고 이해해야 옳다.

<문전본풀이>에서 다습어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대폭 강조된 것은 어디까지나 이 이야기가 본풀이(신화)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본풀이(신화)에서 선과 악은 어리석음과 현명함, 잘함과 못함, 윤리(도덕)와 비윤리(도덕) 등 극명하게 명암을 이루는 방향으로 묘사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신격적 특성과 관련 있는 일상 요소, 일반적 군상(인물)의 특성이 덧칠되며 지속적인 형상화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제주도 본풀이에서 선악은 상극하지만 상생하고 반목하면서도 공존하는 존재이다. 선과 악도 잘함과 못함도 제주도 신화(신앙) 사고 체계 안에서는 평행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극이다.

처첩 관계인 여산부인과 노일저데귀일이 딸은 각각 ‘생산의 공간인 부엌[火, 陽]’ 과 ‘배설의 공간인 측간[泄(水), 陰]’ 을 차지한다.<sup>1)</sup> 생산 기능은 여성성을 상징하니 생산도 배설도 모두 여신들의 몫이 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위생 관념이 관계 인식과 결부하여 신화 속에 스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목에 가면 관련 내용이 법지법(法之法)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니,<sup>2)</sup> 가정 생활 규범 혹은 생활 윤리가 신화의 한 대목으로 스며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위생과 비위생의 곱가름보다 더 중요한 해석이 이면에 존재한다. 생산과 배설은 불가분의 관계로 순환 구조 안에서 따로 또 같이 기능한다는 절대적 진리이다.<sup>3)</sup>

생산 없이 배설도 없겠지만 배설은 생산을 견인하는 필수 전제이며 달리 배설은 음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생산이기도 하다. 아주 근본적인 이 이치는 노일저데귀일이 딸의 사체화생(死體化生) 대목

1) 여산부인과 노일저데귀일이 딸이 지닌 속성을 대비하여 화식(火食)과 생식(生食)의 문화적 우열 관계로 해석하는 연구 견해도 있다. 각 신격이 해당 특성을 짐작케 하는 요소들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본래 있었던 토대를 가져다 가신신앙과 직결되는 사유들로 다지고 나서 남게 된 희미한 흔적 정도로 판단해야지 의도적인 설정은 아닌 듯하다. 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확대 해석인 듯 싶다.

2) “그 때 내은 법으로 변소(便所)광 조왕(籠王)이 맞사민 좋지 못하는 법이라, 조왕잇 거 변소에 못가고 뱃소 옛 거 조왕의 못 가는 법입네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346쪽), “조왕과 변소간은, 두 씨앗이 원수(怨讐)가 뉘난 조왕에 꺼 변소간에 가면 동토가 나고 변소에 꺼 부엌에 와도 동토가 납니다.” (한국학협동과정 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284쪽.

3) 허남춘은 “먹고 배설하는 행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의 행위로 존재하며, 이것의 모두 삶의 순환원리이기에 이 같은 본질적인 근거 하에서 선과 악이 함께 소멸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허남춘, 「<문전본풀이>에서 집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한국무속학』 42, 한국무속학회, 2021, 21쪽.

에도 담겨 전한다.<sup>1)</sup> 해당 대목과 하이누벨레 신화를 견주어 사체화생 화소의 원시성과 가치를 재고하는 연구도 있었다.<sup>2)</sup>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제주의 영등 신앙에 시원을 짐작해 볼 단서가 있다. 음력 2월 초하루에 들어 바당의 모든 어패류를 먹어 치우지만 결국 그가 떠난 뒤에 다시 해산물의 풍요가 찾아 든다는 신앙적 사유는 사회적 관계나 인위적 질서에 앞선 본질적 신성의 실체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원시적 사유가 사회·문화의 변화, 전승공동체의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계와 설정으로 재맥락화 된 예라 할 수 있다. 전승공동체의 지혜와 현명함이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여산부인과 남선비의 좌정 공간과 이들 관계에 따른 상징성도 심오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남선비는 올레 어귀를 관장하는 ‘올레 주목 정살지신’ 이 되었다. 여산부인이 불씨를 지키고 선 부엌이 ‘살림’의 근간이라면, 남선비가 좌정한 올레(혹은 정낭)은 외부에서 내부를 비추었을 때 ‘한 집안의 시작’을 의미하는 근간이다. 올레(혹은 정낭)은 집안을 기준하면 집밖과 이어지는 최후의 경계이고 집밖을 기준하면 집안과 이어지는 최전의 경계이다. 예로부터 어긋돌을 올레 입구에 놓아 한 집안(가옥)의 시작과 외부와의 경계를 구분지었고, 정낭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역할을 했다. 따라서 여산부인과 남선비는 내·외의 근간을 의미하는 주거 장소에 각각 신으로 좌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바깥 기둥, 모=안 기둥’라는 보편적인 역할과 의무, 부부의 가족 역할을 좌정 장소로 형상화 하면서도 제주 가옥 구조의 특성까지 충실하게 투영하고 있다.<sup>3)</sup>

<문전본풀이>에서 부부 혹은 부모의 역할과 관계가 내·외의 근간을

1) 노일저데귀일이 딸은 일곱 형제에 의하여 사체를 분산 당한다. 이때 두 다리는 변소의 디딜판, 머리는 돛도 고리, 머리카락은 해조류(페), 입은 솔치, 이빨은 거북손, 손톱과 발톱은 굼벵이, 배꼽은 굼벵이, 음부는 전복, 남은 몸체는 뿔아 모기로 변한다. 이본에 따라 이 조각이 뱀, 지네와 같은 해독(害毒)한 생물로 화생한다고 사유하기도 한다. 측간 관련 도구 외에 해산물의 기원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밖에 눈은 망원경, 귀는 무전기, 코는 칩통, 입은 스피커와 마이크 등이 되었다는 특별한 전승도 있다. 비슷한 속성을 지닌 생물이나 사물을 가져다 기원신화의 구실을 삼는 양상이다.

2) 김은희, 「문전본풀이와 하이누벨레 신화의 비교 연구: ‘음식기원여신’ 모티브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8, 영주어문학회, 2014.

3) 이를 두고 허남춘은 “자녀를 중심에 두고 집 안팎으로 아버지신과 어머니신이 좌정하는 양상”이라 해석하였다. “어머니는 집안을 차지하여 먹는 것과 아이들의 양육, 가정교육을 담당하고 아버지는 집의 안팎을 연결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동네사람들과의 관계, 마을 공동의 일을 책임지는 가족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왕신과 정낭신의 관계에서 역할 분담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허남춘, 앞의 논문, 31쪽.)



의미하는 주거 장소와 그 거리로 일정하게 의미화 되었다면, 자식인 녹디생인은 다시금 두 장소를 잇고 양자의 속성을 공유하는 장소에 ‘자식’ 만큼의 거리를 두어 좌정한다.상방이 나들목(출입구)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은 남선비가 좌정한 올레(정낭)와 유사한 속성이다. 한편 상방이 살림채의 중심으로서 제사·접대·식사·여타 가사일이 벌어지는 장소이자 봉덕이 있는 장소라는 사실은 부엌(정지)와 깊은 연관을 지닌다. 게다가 상방은 실제로 가옥 구조 상에서 올레와 부엌(정지)를 잇는 장소이기도 하다.

녹디생인은 부모 사이를 잇고 부모의 속성을 공유하면서도 여러 모로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다. 우매하지 않고 강단이 있으며 악을 징치할 수 있는 용기와 기지가 있었다. 그래서 녹디생인은 아버지로 인하여 비틀린 기존 질서를 새롭고도 곧바른 질서로 전환하는 주역이자 집안의 중추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어그러진 질서를 잘못된 주체 스스로가 깨닫고 바로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대의 전환’이라는 순리 안에서만은 후대가 선대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 더욱 현명하게 삶을 살아내길 바라는 편이 훨씬 가치 있는 선견이자 배려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남선비는 이 난제를 노일저데귀일이 딸이라는 방해꾼 때문에, 또 스스로의 우매함 때문에 풀어내지 못했다. 남선비와 노일저데귀일이 딸의 축출은 결국 올바른 새 질서의 정립을 위한 당위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두 존재는 완전히 거세되지 않는다. 녹디생인 외에 다른 형제들도 주역이 아니라 해서, 주역보다 능력과 역할이 미약한 존재라 해서 배제되지 않았다.<sup>1)</sup> 전승면에서야 혼란스러운 양상일 수 있지만, 제각기 나름의 역할을 관련 신앙 체계 안에서 부여하고 통합하는 전승층의 유연한 사고는 제주 신화, 제주 무속 체계를 관통하는 심성사적 가치이고 전승해야만 하는 삶의 지혜이다.<sup>2)</sup> <문전

1) 녹디생인의 형들도 신으로 좌정하는데 이 부분에 혼란이 많다. 문전신으로 좌정한 대상도 이분 간 달리 나타나기도 해서 논쟁 거리가 된 적도 있었다.보통 녹디생인을 제외한 여섯 형제는 차례로 오방토신(五方土神)과 뒷문전 신으로 좌정하였다고 전한다. 별도로 이분에 따라 남선비는 거리동티로, 위로 세 형제는 성주신(상성주, 중성주, 하성주)으로 좌정하였다는 전승과 남선비와 큰아들이 문전신과 정낭신으로 좌정하고 나머지 아들 형제들은 북두칠성(칠성신)이 되었다는 전승도 있다. 문전신 신앙과 성주신 신앙, <문전본풀이>와 육지부 <칠성풀이>, 문전신과 제주도 칠성 신앙(뱀칠성, 북두칠원성군), 정살지신 관련 의례와 <문전본풀이> 간의 상관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다.

2) <문전본풀이>에는 문전신앙뿐 아니라 성주신앙, 토신(터주신)신앙이 결합되어 있다. 실제로는 <문전제>, <성주풀이>, <토신제>로 개별 의례가 분리되어 있지만 본풀이(신화) 안에서는 이들 신앙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성주신과 관련된 신화는 별도로 전승되지만 <문전본풀이>처럼 큰곳 안에서 구연되지 않는다.

본풀이>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두고 ‘일상을 공유하는 밀착 관계 (가족)’와 ‘일상 공간’의 귀중함과 위대함은 물론,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신성한 것이라는’ 명제를 일깨우고 있는 셈이다.

# 6강

칠성본풀이

- 뱀신(蛇神)의 얼굴 '안칠성'과 '뱃칠성'이 가져다주는 풍요



# 칠성본풀이

## - 뱀신(蛇神)의 얼굴 ‘안칠성’ 과 ‘뱃칠성’ 이 가져다주는 풍요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

### 1. 뱀신의 내력, 칠성본풀이

장설룡과 송설룡이 부부인데 부5자로 잘 살아도 오십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다가 절에 불공을 드려 딸을 얻었다. 아기씨가 일곱 살이 되던 해에 부부는 벼슬살이를 떠나면서 아기씨를 가두고 느진덕정하님에게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 아기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느진덕정하님은 부부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연락하였다.

아기씨는 밖에서 죽을 사경을 당하였는데 마침 불공을 드렸던 절의 중을 만나게 되었다. 중은 아기씨를 단단히 싸서 장설룡 집의 먼 문노릇돌 아래 파묻어 두고 집으로 들어갔다. 부부는 아기씨를 찾을 수 없어 근심하고 있었는데 중이 오자 행방을 점쳐보라고 부탁하였다. 중은 아기씨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 노릇돌을 파 보라고 하였다. 장설룡 대감이 화를 내며 중을 죽이려고 하자 중은 술법으로 달아났다. 이어 노릇돌을 파 보니 아기씨가 정말 있었는데 임신한 몸이어서 양반의 집에 큰일이니 무쇠석함에 담아 동해바다에 띄워 버렸다.

무쇠석함은 제주로 들어오고 다시 여기저기 마을을 떠다니다가 함덕 마을로 들어갔다. 이때 일곱 잠수가 물질하러 가다가 무쇠석함을 발견하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움을 벌였다. 지나가던 송첨지 영감이 이를 보고 석함 안에 든 것은 일곱 잠수가 공평하게 갈라 가지고 상자는 자기 담배상자로 쓰겠다고 하여 싸움을 말렸다.

송첨지 영감이 상자를 열어보니 일곱 마리 뱀이 있었다. 송첨지 영감과

일곱 잠수가 재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헤쳐 던졌는데 그날부터 죽을 사경에 이르렀다. 점을 쳐보니 남의 나라에서 온 신을 박대한 죄라고 하여 칠성새남굿을 하였다. 굿을 하니 병이 좋아지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 이어 칠성당을 마련하여 위하여 가니 다른 사람들도 함께 모시게 되어 함덕 마을이 부촌이 되어갔다.

일곱 아기와 아기씨는 함덕 마을을 떠나 여러 마을을 거쳐 제주도성 안으로 찾아갔다. 마침 도성 안 칠성골의 송대장 부인이 이들을 만나 조상으로 모시니 송대장 집이 부자가 되었다. 나중에 일곱 아기는 각각 추수할망, 옥지기, 과원할망, 창고지기, 밧칠성 등으로 들어섰다. 어머니인 아기씨는 집 고팡의 안칠성으로 좌정하였다(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 **장설룡** : 칠성아기씨의 부. 부부간에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려 딸을 얻음. 벼슬 살러 간 사이에 칠성아기씨가 중에 의해 임신이 되자 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버림
- **송설룡** : 칠성아기씨의 모
- **칠성아기씨** : 장설룡과 송설룡의 딸. 임신이 되어 부모에게 버림 받고 제주도 함덕마을로 들어와 뱀의 몸이 되어 일곱 딸 뱀을 낳음. 함덕마을에서 신으로 제향 받다가 함덕마을을 떠나 제주시 칠성골로 들어와 송대장 집을 부자로 만들어 준 뒤 딸들을 각각 좌정시키고 자신은 고팡을 차지하는 안칠성이 됨
- **절간 중** : 부모를 따라가다가 죽을 사경을 당한 칠성아기씨를 만나 잉태시킴
- **칠성아기의 일곱 딸** : 각각 추수할망, 옥지기, 과원할망, 창고지기, 밧칠성 등을 차지함
- **함덕 일곱 잠수** : 바다에서 함을 발견한 뒤 칠성아기씨를 신으로 모심
- **송첨지 영감** : 바다에서 잠수들이 발견한 함을 열어준 뒤 칠성아기씨를 신으로 모심
- **함덕 급서황하늘** : 함덕마을 당신. 칠성아기씨가 주민들의 제향을 받자 마을에서 쫓아버림

- **함덕 서물할망** : 함덕마을 당신. 칠성아기씨가 주민들의 제향을 받자 마을에서 쫓아버림
- **칠성골 송대장 부인** : 칠성아기씨를 타고난 조상으로 모셔 부자가 됨

심방에 따라 칠성본풀이의 서두에 아이를 얻기 위한 치성(致誠)의 과정에서 북두칠성(북두칠원성군)이 등장하는 대목을 구연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이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절에 칠성제 불공을 드린다. 북두칠원성군 가운데 원성군이 그 기특한 정성을 생각하여 자신의 수제자를 내려 보내면서 칠성제 제물로 부부를 장님으로 만든다. 마침 병란이 들어 장씨와 송씨를 모두 죽이고자 할 때 부부는 장님이어서 오히려 화를 면한다. 원성군은 수제자를 다시 보내 명주로 눈을 닦아 밝게 하였다. 이에 부부는 다시 제물을 마련하여 칠성제를 드린다. 부부는 소원대로 딸을 얻는다. 이 딸이 칠성아기이고, 나중에 자신도 일곱 딸을 낳는다. 이 내용은 어느 한 심방만의 개별적 전승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의 이본(異本)이 여럿이다. 뱀신의 이름도 칠성기도를 통하여 얻었으니 칠성아기라는 것이다. 칠성본풀이의 뱀신 내력에는 북두칠성 화소도 함께 녹아있다.



<사진 9> 칠성 신상 만들기



<사진 10> 칠성 신상

곳판에서는 칠성을 구체적으로 상징하고 보여주는 무구를 제작한다. 곧 칠성 신상(神像)을 말한다. 칠성 신상은 종이를 접어 만든다. 실제 뱀 한 마리가 꼬리를 들고 앉아 있는 모양을 연출한다. 뱀처럼 길쭉하게 종이를 접어놓고 뱀의 얼굴과 비늘 모양을 섬세하게 그려 신체를

만든다. 신체가 완성되면 쌀을 가득 담은 그릇 위에 올려놓거나, 혹은 채롱에 쌀을 잘 펴서 담고 그 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이때 날계란을 함께 놓는다. 신상의 입에는 일곱 방울의 쌀을 물려 놓는다. 신앙민들은 칠성본풀이를 통하여 칠성에 대한 내력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신상을 보며 칠성을 인식하게 된다.

한편 이 칠성 신상은 알토산의 여드레한집을 상징하기도 한다. 알토산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2리를 말한다. 여드레한집은 알토산 본향당인 여드렛당의 당신으로 뱀신이다. 당신의 내력은 토산여드렛당본풀이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 당신과 관련하여 곳에서 방울뿔이라는 제차가 있다. 방울뿔은 방울친이라고 하는 긴 무명을 매듭지어 놓고 이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신의 맺힌 간장을 풀어 주는 제차이다. 방울뿔을 하기 위하여 방울친과 함께 이 칠성의 신상을 준비한다.

## 2. ‘안칠성’ 과 ‘뱃칠성’ 이 가져다주는 풍요

### [제주도 칠성]

제주도의 민간신앙 가운데 칠성이라고 전승되는 뱀 신앙도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의 뱀 신앙에서 지역적 범위로나 신앙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칠성이 가장 핵심적인 뱀 신앙이다. 칠성이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뱀을 두고 칠성(七星)이라고 인식한다. 이 칠성은 부군칠성(府君七星) 혹은 안칠성과 뱃칠성 등이라고도 하며 부와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긴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제주의 뱀 신앙 양상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김정(金淨)은 『제주풍토록』에서 풍속에 뱀을 매우 꺼리며 신이라 여겨 받들고, 보면 술을 바쳐 빌며 감히 쫓아내거나 죽이지 못한다고 적었다(俗甚忌蛇 奉以爲神 見卽呪酒 不敢驅殺).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에서는 섬사람들과 같은 경우는 구렁이와 뱀을 가리지 않고 보면 문득 돌아가신 조상의 신령과 같이 여겨 반드시 고운 쌀과 정수를 뿌리면서 빌며 절대 죽이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島人則勿論蟒蛇 見之輒謂之府君神靈 必以精米淨水 灑而祈之 切不殺害).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제주의 뱀 풍속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고문헌마다 제주에 뱀이 많고 여기저기에 출몰하며 뱀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칠성은 조상신, 당신, 일반신 등으로 다양하게 섬겨지고 있다. 관련 본풀이 전승도 여럿이다. 칠성본풀이에도 그러한 면모가 잘 드러난다. 조상신 성격은 본풀이에서 특정 개인과 뱀신이 결연하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함덕리의 일곱 잠수와 송침지 영감, 제주시 칠성골의 송대장 부인 등과 결연하여 부자를 만들어 주는 내용이다. 당신 성격은 함덕리에서 칠성당을 만들었다거나 혹은 제주도 마을 곳곳을 옮겨 다니면서 영향을 끼쳤다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신 성격은 제주도 대부분 가정에서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좌정하여 부신(富神)의 역할을 하는 양상에서 드러난다. 어느 한 개인이나 마을이 아닌 보편적인 신으로 인식된 결과이다. 결국 칠성본풀이의 내용에서 칠성은 애초에는 조상신에서 출발하여 당신으로 확대되다가 보편적인 일반신으로 그 성격이 진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앙민이 뱀을 모실 때는 ‘테운 조상’이라 하여 자신에게 타고난 조상이라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적극적으로 조상을 맞아들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조상신으로 좌정하는 뱀은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특정한 신앙민과 결연한다. 무곡장사를 다녀오다 배 밑이 터지는 조난사고를 당한다거나, 양곡을 얻는 과정이거나, 굶 혹은 제사를 지내다 뱀을 조상으로 모시게 된다. 이러한 특별한 계기와 내력을 통하여 생긴 존재가 한 집안의 조상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테운 조상이라는 관념은 칠성 조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 무속에서 특별한 계기로 결연을 할 때 두루 나타난다. 테운 조상은 극진히 잘 모시면 신앙민에게 명(命)과 복(福)을 주는 존재이다. 만약 조상에게 소홀히 하면 더 나은 단골을 찾아 떠나버린다.

### [안칠성과 밧칠성]

칠성본풀이 후반부에 뱀들은 칠성골 송대장 집에서 나와 다시 좌정처를 구한다. 이때 관청(官廳), 동헌(東軒), 마방(馬房), 과원(果園), 옥(獄), 이방(吏房)/형방(刑房)/사령방(使令房), 고팡, 칠성눌 등의 좌정처가 나타난다. 여기서 핵심은 ‘고팡’(庫房)과 ‘칠성눌’이다. 칠성의 좌정처로써 고팡과 칠성눌의 유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칠성본풀이의 내용이다. 안칠성은 집안의 고팡에 좌정한 신이다. 밧칠성은 집 뒤꼍에 칠성눌을

만들어 모신다. 주로 곡신(穀神)적 성격을 가지니 자연히 부신(富神)의 속성을 드러낸다. 가정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문전제(문전철같이) 같은 가정신앙 의례에서도 기원을 한다. 칠성은 가신(家神)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제주도 무속에서 안칠성은 뚜렷하게 뱀으로 인식되는 존재이다. 그런데 밧칠성에 대한 신앙 양상은 안칠성에 견주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밧칠성을 모시는 집안도 있고 모시지 않는 집안도 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인지 후대로 전승하면서 모시지 않는 양상이 늘어난 것인지 확실히 추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래도 누구나 대체로 안칠성을 모신다는 점에 견주어 확실히 차별점이 있다. 둘째, 밧칠성의 존재 양상이 다양하고 행제(行祭) 방법도 비밀스러운 편이다. 실제 마을에서 현장조사를 해보면 안칠성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무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밧칠성에 대한 제보는 쉽게 듣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는 표정도 사뭇 느낄 수 있다. 집 뒤꼍의 칠성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뱀과 관련한 밧칠성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밧칠성에 여러 가지 신앙 양상이 혼합되면서 점점 비의적인 신앙으로 변화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진 11> 안고팡(서재철 사진, 제주학아카이브)



<사진 12> 밧칠성(강만보 사진, 제주학아카이브)

### [큰곳의 각도비념, 칠성새남곳]

개인집의 일반적인 곳에서는 큰곳의 ‘각도비념’ 과 ‘칠성새남곳’ 등이 칠성본풀이와 밀접하다. 각도비념은 곳의 후반부에 집안에서 모시는 가신들을 위하여 기원하는 제차를 말한다. 칠성새남곳은 뱀을 죽였거나

또는 죽은 뱀을 보아서 생긴 병을 치료하는 곳이다.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니 문점(問占)을 하여 그 원인을 알아본 결과, 뱀을 죽였거나 혹은 우연히 죽은 뱀을 보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 칠성새남굿을 하게 된다. 굿의 핵심사항은 환자가 뱀을 죽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진 13> 허맹이

어떤 다른 존재가 뱀을 죽였고 환자는 우연히 죽은 뱀을 처음으로 보았을 뿐인데 억울하게 그 죄를 뒤집어써서 병에 걸렸다고 말하게 된다. 따라서 누가 뱀을 죽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나중에 뱀을 죽인 존재는 악신(惡神)인 ‘허맹이’ (사람 형상을 흉내 내어 만든 일종의 허수아비)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환자에게는 죄가 없음이 드러난다. 이어 죽은 뱀을 다시 살려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 [칠성 신명(神名)]

제주에서 뱀을 두고 칠성이라고 부르게 된 데는 북두칠성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 사람 처지에서는 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해당 집안에서 뱀을 조상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당신이나 일반신으로서 보편적 곡신인 뱀 신앙도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그 내력을 중시하여 본풀이도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뱀에 대한 인식 재고는 달리 말하면 뱀 신앙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신앙에 대한 탄압에 맞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뱀 신앙의 지속과 안정성을 위하여 북두칠성 신앙을 활용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뱀 신앙과 칠성신앙을 결합한 셈이다. 칠성본풀이 서두에 나오는 북두칠성 대상의 기자치성 칠성제 화소도 이를 뒷받침한다. 외부적으로는 뱀에 칠성이라는 외피를 씌우는 데 성공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걸이 기록한 부군신령(府君神靈)이 곧 부군칠성(府君七星)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개인들이 모시던 뱀 조상도 이제는 부군칠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뱀과 북두칠성 신앙의 결합을 통하여 뱀에

칠성이라는 외피를 씌운 결과 뱀은 단순한 혐오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뱀 신앙도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변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뱀의 부신(富神) 혹은 풍요신(豊饒神) 성격과 북두칠성의 수복신(壽福神) 성격은 두 신앙을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교집합이었을 것이다. (이 글은 제주신화학고 강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참고 문헌을 따로 밝히지 않음)